

광주 뿌리산업 개선사업...고용유지 효과 '톡톡'

광주경총, 근로자 주거비 등 지원 지역기업 경영·인력난에 수요 높아 거주안정·건강·장기근속 핵심 요소 "지속가능 일자리체계 정책 마련을"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 중인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이 기업들의 근로자 고용 유지에 효과를 거두면서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의 근로자 대상 주거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분야에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뿌리기업의 인력난과 이직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 정규직 채용 인건비, 장기근속 장려금, 복지시설 개선, 주거비, 건강검진비 등 근로자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근로자 주거비(월 최대 30만 원, 최대 6개월)와 건강검진비(1인당 최대

30만 원) 항목은 사업 초기부터 참여 문의가 집중되며 조기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다.

특히 이직률이 높은 뿌리산업 현장에서 '거주 안정'과 '건강관리'는 장기근속 유지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지역 뿌리산업은 자동차, 가전, 금속부품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고금리·수요 둔화·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 요인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발생한 광주 기아자동차

협력사 산재 사망 사고나 주요 부품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사례는 현장 내 인력 부족과 근로환경 개선의 시급함을 드러낸 단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현재 뿌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람이 안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을 시작해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사업처럼 복지·환경 요소까지 고려한 고용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근로

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진정한 고용 유지가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반영과 유관 기관 간 연계사업 발굴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업 참여를 접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jef.or.kr) 또는 일자리사업부(062-716-350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상의, 지역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 본격화

분산된 지원정책 통합·연계 추진 기초진단 후 단계별 맞춤 컨설팅 "기업성장·지역 일자리창출 도모"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가전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역 가전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분산된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 기업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광주지역 가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애로 해소를 통해 가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가전 관련 기업, 업종전환 기업이거나 융합기술 및 제조기술 업종도 포함된다.

컨설팅 분야는 가전을 포함해 인공지능(AI), 광기술, 에너지, 경영, 마케팅 등으로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들이 기업 전담 컨설턴트로 참여해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컨설팅 사업은 먼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기업을 방문해 기초진단을 실시해 기업 현황 진단, 산업 및 시장 분석 등 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 강화 및 지원사업 연계 등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기업에로 사항 지원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수행해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지역 가전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성장한계에 직면한 지역 가전기업들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가전기업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일자리플랫폼(<https://www.gjobgo.com>)에 접속해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롯데백 광주점, 맨즈워크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3일부터 8일까지 남성 패션 특별 프로모션인 '맨즈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맨즈워크 행사 기간 동안 캠퍼지 멤버스 매장에서는 '나만의 핏'을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맞춤 정장(MTM) 10% 할인 혜택과 더불어 2025년 S/S 상품 20% 할인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시리즈 매장은 구매 금액대별 10% 할인, 지이크는 브랜드데이 추가 10% 할인, 헨리코튼은 시즌오프 20% 할인과 함께 구매 금액대별 10% 상당의 롯데상품권 증정 사은행사까지 광주점에 입점한 남성 패션 브랜드별 다양한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남지방우정청, 무안양파 농가 돕기 특별전

도매가격 하락에 온라인 판로 지원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쇼핑 '무안양파 농가 돕기 특별전'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생육기 기상호조로 과잉 생산돼 가격이 하락한 양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무안양파 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정보에 따르면 중만생 양파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만

4000톤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6월 중만생 수확기를 앞두고 양파 생육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산량이 전년보다 7.5% 증가해 도매가격 하락으로 양파 생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무안군과 협업해 이날부터 4일까지 우체국쇼핑몰(<https://mall.epost.go.kr>)을 통해 무안군의 조생종 양파 판매를 진행한다. 무안군에서 할인쿠폰을 지원하며 양파 3kg(중대 혼

합)를 3900원의 특별 할인가로 1만3000건 한정판매를 실시한다.

이동성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도매가격 하락으로 경영비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무안군 양파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남청은 앞으로도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농어가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DH오토웨어 북미법인, 차량 339만대분 수주 계약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제어기 부품

DH오토웨어는 북미법인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의 멕시코 생산법인으로부터 대규모 차세대 차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제어기 부품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5년간 차량 339만대분 물량으로 조단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H오토웨어는 지난 2023년 6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7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대형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거래 상대방 회사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핵심 부품사로, 멕시코

생산법인은 북미 생산거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글로벌 완성차기업의 차량에 적용할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제어기의 핵심 부품이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 제공뿐 아니라 공조·조명 제어, 내비게이션 연동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며 자율주행차에서 필수적인 정보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다.

DH오토웨어는 북미 현지화를 위해 지난해 멕시코 공장을 설립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제품 납품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커넥트 S/L 제어기 부품 수주가 더해지면서 DH오토웨어는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안정적인 추가 매출을 확보하게 됐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관세 리스크로 인해 자동차부품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미 내 생산거점을 활용한 대규모 수주는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주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라인 증설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DH오토웨어 관계자는 "멕시코 북미법인 연간 최대 8000억 원 매출이 가능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수주 대응에도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기아, '인스파이어링 스토리 워드 기아' 이벤트

추첨 통해 신차 시승 등 제공

기아가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셀토스 등 주요 RV(레저용 차량) 라인업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인스파이어링 스토리 워드 기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아와 함께한 추억' 공모전으로 시행되며, 기아 차량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고객들은 기아와 함께한 행복했던 일상을 사진과 함께 사연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 3개 중 희망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함께 선택해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기아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https://www.kia.com/kr/event/list>)에서 하면 된다.

추첨 프로그램에는 △HMG 캠핑 익스피리언스 △신차 시승 △보유차량 케어 등이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중 개별 안내로 진행된다.

당첨 사연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고객의 소중한 추억은 AI 기술을 활용한 특별 전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금호고속, '동광양·광양·구례·남원-인천공항' 노선 운행

금호고속이 4일부터 '동광양·광양·구례·남원-인천공항' 신규 노선을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일 상·하행 각 1회 정기 운행되며, 지역별 출발시간은 동광양 기준 오전 12시5분, 광양 오전 12시30분, 구례 오전 1시5분, 남원 오전 1시40분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오전 9시, 제1터미널에선 오전 9시25분에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기준 동광양에서 5시간35분, 광양에서 5

시간10분, 구례에서 4시간 35분, 남원에서 4시간이 걸린다.

예매는 '티머니G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하행 모두 가능하며, 상행은 코버스 홈페이지와 '고속버스터미널'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